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6. 12.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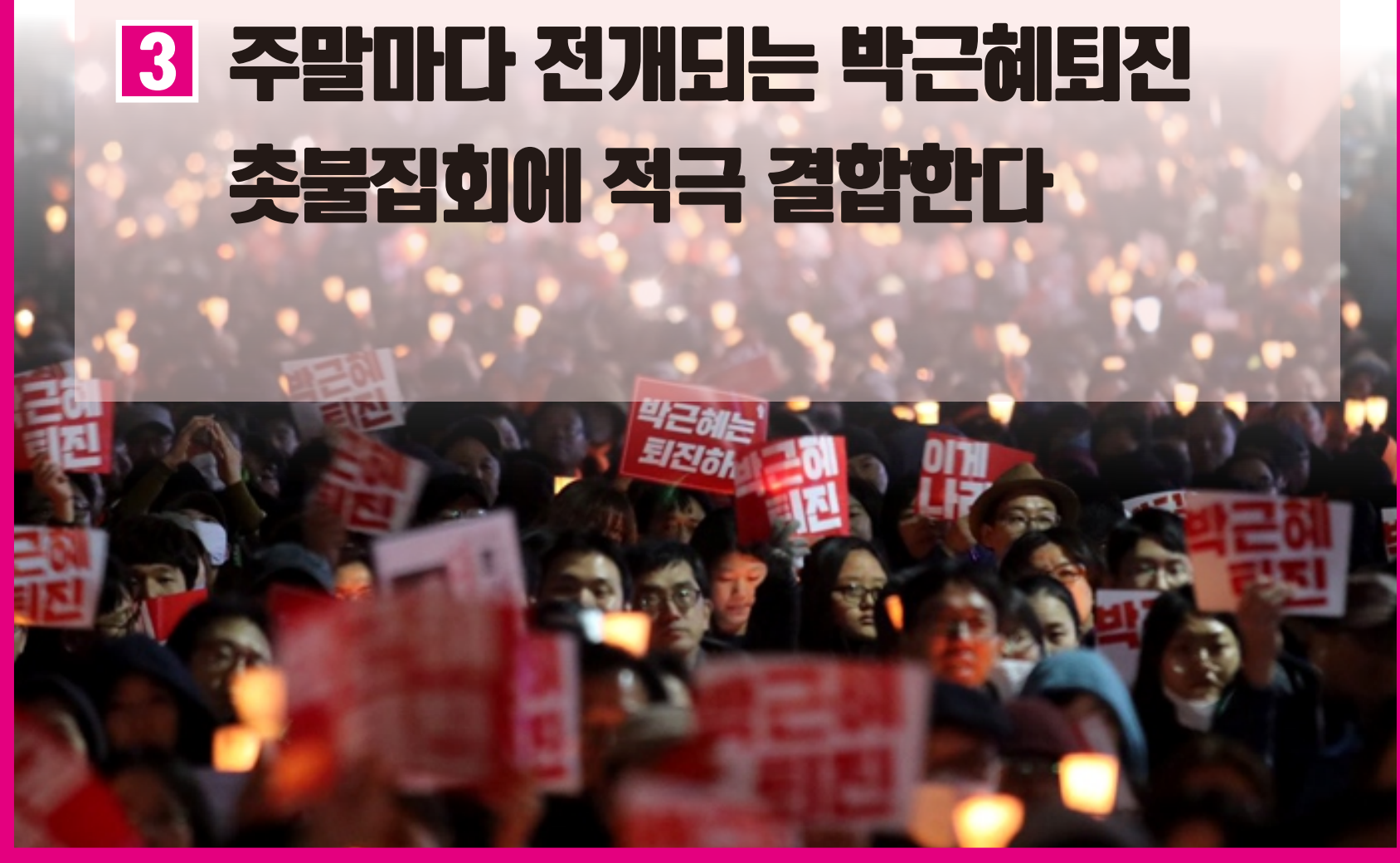
# 우리가 꼭 내려가! 가자! 총파업!!

제2의 419혁명! 촛불항쟁으로! 가자! 역사의 한복판으로!



# 박근혜 퇴진 투쟁지침

- 1** 현장에서 리본 착용한다
- 2** 집집마다 현수막 게시한다
- 3** 주말마다 전개되는 박근혜퇴진  
촛불집회에 적극 결함한다



# 김기춘 '통합진보당 해산' 개입

## 한겨레

HANI.CO.KR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001면 종합

### 김기춘, '통진당 해산' 헌재 논의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 '김영한 비망록'으로 본 헌재 독립성 논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사건 선고 이틀 전에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헌재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 등 평의 내용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통진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 결과까지 청와대에 미리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박한철 헌재소장 체제의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3면

〈한겨레〉가 5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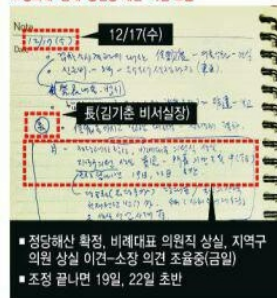
“지역구 의원직 상실 이견, 소장 의견 조율중”  
2014년 12월17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서 발언  
‘정당해산 확정’ 헌재 결정 이틀전 미리 알아

무수첨) 전문을 보면, 2014년 12월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적혀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선고 기일을 공개했고, 이를 뒤인 12월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특히 김 전 수석의 당시 메모에는 정당 해산 결정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

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박 헌재소장이 이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정이 끝나면 19일이나 22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선고일 전날까지 일부 재판관들이 의견을 확정하지 못했고, 박 헌재소장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메모 ※청와대-헌재 ‘통진당 해산’ 사전 조율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재는 통진당 재판 결론은 그해 12

월19일 오전 10시 선고 직전에 최종 결정됐다고 밝혀왔다. 김 전 수석의 메모는 헌재의 이런 설명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의 헌재 재판 결과 언급은 앞서 박 헌재소장의 공식 발언 전에 ‘통진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을 청와대 회의에서 언급(〈한겨레〉 3일치 1면)한 것과 맞물려 청와대와 헌재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김 전 수석의 메모에는 김 전 실장이 선고 전날인 12월18일에 ‘국고보조금 환수’ 등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한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i@hani.co.kr

김기춘 실장, 수석회의서 통합진보당 해산 신속처리 주문,  
2주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내 선고" 공식 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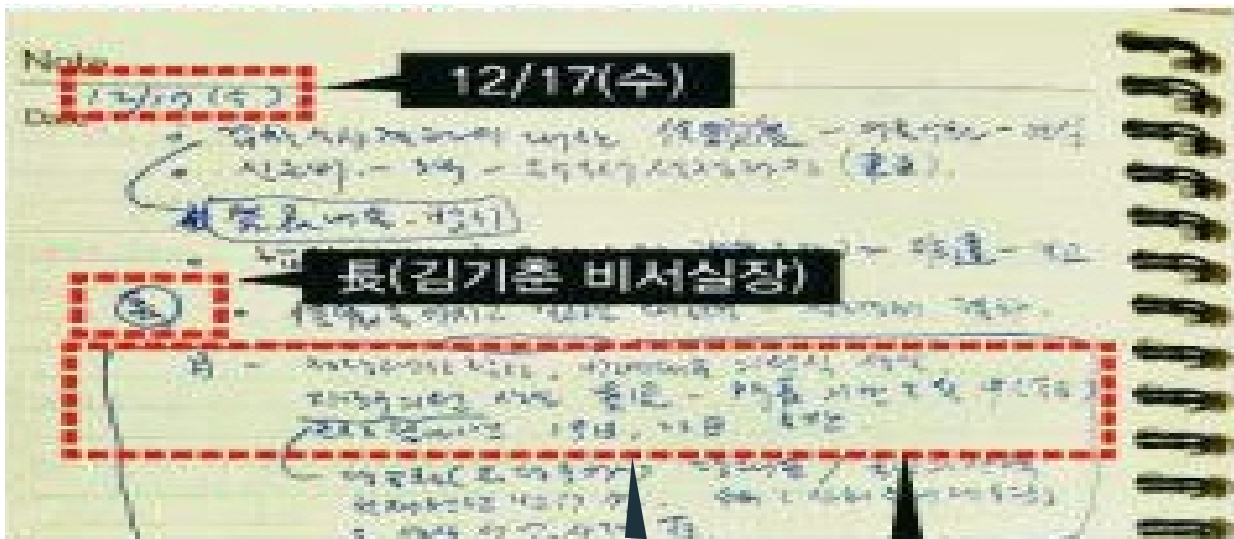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문제를 짜고 친결로 밝혀져.



# 헌법재판소 '독립성' 상실

##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메모

※청와대-헌재 통진당 해산 사전 조율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가 이정희 후보에 대한 보복정치를 한 것이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메모를 통해 낱낱히 드러난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판결한 것이다.

# 20대 국회 교육공무직법 입법발의!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이 발의!**

지난 2016년 11월 28일 유은혜 의원의 대표발의로 75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40명의 공동발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참여한 것으로 그만큼 많은 의원들이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의는 첫 관문일 뿐입니다.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토론하게 됩니다. 또한 찬반여론을 듣는 공청회도 개최하게 됩니다. 내년 대선을 전후로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될수 있도록 학비노조 조합원들의 힘을 모읍시다.



■ 11월 23일 교육공무직법 제정 기자회견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공무직법 국회토론회